

교회 3대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신문사 소석관 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편집국 직통전화 554-1615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얻든
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디모데 후서
4장 2절)

교회설립 36주년 기념행사 확정

① 기념감사예배, ② 음악의 밤, ③ 교구별 찬양경연대회, ④ 선교옹변대회, ⑤ 성경암송대회, ⑥ 성극경연대회, ⑦ 장애인돕기 바자회, ⑧ 민족복음화를 위한 전도대회

교회설립 36주년 기념행사가 확정되었다. 오는 9월3일로 우리교회 설립 36주년을 앞두고, 감사예배, 음악예배,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교옹변대회, 성경암송대회, 성극경연대회, 또 교구위원회가 주관하는 교구별 찬양경연대회, 구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돕기 바자회, 전도위원회가 주관하는 민족복음화를 위한 전도대회와 전도세미나 등의 행사개요가 지난 7월 정기당회에서 의결되어 각 부서별로 준비에 들어갔다.

이미 교구위원회는 찬양경연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교육위원회도 각 행사별 준비위원장을 임명했다.

▲찬양경연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원선장로, 위원: 김재명, 노광현, 차신득장로, 김학진목사, 구명선전도사, 최시원교수.

▲선교옹변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임필성장로

▲성경암송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박승준장로

▲성극경연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손경수장로

교수선교회 발족위한
조찬모임

본교회는 교수선교회 발족을 위한 조찬모임을 지난 7월21일 오전7시30분 칼빈홀에서 가졌다.

동 모임에는 이종윤위임목사, 윤종성전도위원장, 강은원장로(전도부장)와 교수 7분이 참석하여 창립총회 준비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발기인 모임에서 결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교수선교회 발기총회는 8월13일(시간은 추후발표) 갖기로 하다.

②창립총회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 오전7시30분 준비위원 교수들이 모이기로 했다. 이 모임에서는 새로운 회칙, 새로운 회장단 및 임원구성을 위한 의견도 집약하기로 했다.

고등부 수양회
31일, 충현기도원

교회학교 고등부(부장/최무길 장로)는 제27회 여름수양회를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동 수양회에서는 삶의 목표와 실천 방안을 가르쳐 주며, 주님의 사랑을 확인함과 동시에 공동체 생활을 통한 건전한 젊음의

활동을 유도해 주어 바른 가치관을 지닌 확고한 신앙의 젊은이들로 육성케 된다.

수양회 교과과정은 예배, 성경공부, 찬양 외에 주님가신 고난의 길을 체득해 볼 수 있는 천로역정을 비롯하여 산상기도회, 촌극대회, 하늘운동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영기목사(합동신 교수)와 이유아집사(한국교육연구원 원장)의 기독교인의 학교생활과 자기관리 등에 대한 특강도 있으며, 김동렬목사의 「이단연구」, 김익경목사의 「통일교강의」, 양창근전도사의 「선교특강」도 갖는다.

동 수양회 참가회비는 1인당 1만5천원이며, 기도원 출발시간은 31일 오전 10시 교회당 뜰이다.

영아부찬양대의자
특별제작 기증

금년초부터 시작된 본교회 영아부 찬양대는 1부·2부 예배 찬양대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매주일마다 예쁜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원들이 만2세, 만3세 이상의 어린이로 너무 어리고 작기 때문에 몸에 맞는 찬양대 의자가 없어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학부모들이 영아부 어린이의 체격에 알맞는 찬양대용 의자를 특별제작하여 지난 7월2일 영아부에 기증하였다. 그동안 각 성구 사들을 통해 영아부 찬양대용 의자구입을 시도해 보았으나 시중 제품들이 어른용 뿐이어서 이를 포기하고 직접 제작하여 기증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제작에는 본교회 이영남 집사(아멘찬양대원)가 담당했다.

전도상 시상식 가져

믿음, 소망, 사랑상에 50명 수여

교회는 2/4분기 전도상 시상식을 지난 7월23일 오후8시 본당에서 가졌다.

이번 수상자는 믿음, 소망, 사랑 등 50명이며, 제일 많이 인도한 자는 5명을 인도한 김규중씨와 김애경씨로 밝혀졌다.

각부분별, 교구별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소속교구임)

▲믿음상(4명 이상 전도한 자)
김경숙(2교구), 김규중, 김애경, 강삼선, 김종록(7교구), 김은수(8교구), 김효정, 박상준(12교구), 박윤석(13교구)

▲소망상(3명 이상 전도한 자)
장희수, 이수자, 김승기(1교구), 하두연(3교구), 윤영길(4교구), 최시원(8교구), 한명준(11교구)

▲사랑상(2명 이상 전도한 자)
강신순, 이영숙, 이순애, 홍혜숙(1교구), 임경희, 방윤경, 박우옥(2교구), 임신자, 홍현기, 권택용, 서정애(3교구), 박순봉, 전순자, 홍화숙, 유정수(4교구), 김순영, 이춘미(5교구), 심관섭(6교구), 김영숙, 김광순, 김옥선, 김현미(7교구), 서덕순(8교구), 최춘란, 박태진, 유금수(10교구), 조인옥, 이복규, 이남숙, 김석영(11교구), 김순자(12교구), 윤순전(13교구), 송옥현, 유순녀(14교구)

▲ 89년도 농어촌 하기전도대 파송예배가 지난주일(7월23일) 오후7시 본당에서 있었다.

▲ 새로 제작한 의자에서 찬양하는 영아부 찬양대

여전도회 협의회사
충현기도원에 방석 기증

여전도회 협의회는 지난 주간 충현기도원에 방석 500개를 구입하여 기증했다.

여름 계절학교로 충현기도원이 만원사래인데, 깨끗한 방석으로 기도원 분위기가 한층 더 청결해 보였다.

기도원 측에서는 방석을 기증한 여전도회 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전해달라고 본사에 의뢰해 왔다.

교사추가임명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당회의 인준을 받아 교사를 추가 임명했다.

양기수(소년부), 문경자(새신자부), 조영숙(세례부).

이종윤위임목사의 수요일에 성경강해 시리즈④



본문 / 요한복음 5장 24-27절

요한복음 5장 24, 27절을 중심으로해서 은혜를 기다리려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3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둘째는 그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며,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것과, 셋째는 그 생명이 우리가 부활할 때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생명이 완성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24절을 보니 아들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믿는 우리에게는 지옥으로 가느냐 아니면 천국으로 가느냐 하는 심판은 면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에게는 금면류관이나 아니면 부끄러운 면류관-이는 신앙의 열매가 없이 자신만 구원받은 면류관(편집자 주)-이나 하는 것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24절의 "있다"와 "이르지 아니한다"는 두 동사는 현재형으로 되어있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동사의 시제는 현재완료형입니다.

그러므로 시제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래서 지금은 영생을 얻은 상태이며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몇가지 진리를 찾아봅시다.

첫째로,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소유했으므로 영원

생명이 아닌,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선 영생과 생명이 동의어로 사용되었는데 그 영생은 하나님의 활동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요 하나님을 모신 것이 생명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실상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꽃병에 갖가지의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그냥 꽃혀있을 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잘되는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나중엔 무가치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할, 불타는 지옥에 던져줄 받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바로 예수 없는 생명입니다. 혹자는 믿음이 있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이 신앙의 결과가 아니며 신앙의 상급도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이 먼저 주어지고 그 후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안에 자기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얼핏보면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24절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살펴봅시다. 여기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듣는다'는 말과 '믿는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둘은 실상 동의어입니다. 즉 '내 말을 듣고'라는 말은 '내 말을 믿고'이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같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뜻은 단지 귀로만 듣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아무개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을 잘 순종한다는 의미이지 귀로만 듣는다는 의미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후에 생명을 얻는지, 생명을 가진 후에 믿음을 갖느냐하는 질문이 중요해집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지적 작용"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시간속에 있는 영원

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에서 얻었다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영생(생명)이 믿음의 결과라면 이 동사는 미래시제(얻을 것이다)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성경엔 현재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기에선 믿음보다는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믿음을 보다는 '중생'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오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믿게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에 부합되는 몇가지의 성경의 실례를 살펴봅시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조상대대로 다른 신을 섬겼던 혈통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가리켜 "순전한 은혜"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인간을 찾아오시므로 인간은 응답을 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살펴보면 형편없이 무리하기 짝이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신 것으로 봐선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먼저 주시고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아브라함처럼 부르신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가 몇명이 지나도 안주시니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5년이 지나자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출생시

키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구별을 모태가 정실부인이며 몸종이라는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방법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가령 이삭의 아내(리브카)에게서 출생한 야곱과 에서의 예를 본다면 같은 모태에서 출생되었지만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조건은 인간적인 것-지방색, 학력, 권세, 재산, 민족...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선택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의 기준이 무어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같은 것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만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뿐이지 우리가 저 사람

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지옥으로 가느냐고 하나님께 따질 수 없습니다.

순교자들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 때문에 자기 생명을 분토처럼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모세를 들어 쓰신 하나님,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선택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교회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므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되고 그들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둘째는, 그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며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죽은 자"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엡 2:1, 5, 5:14, 마 8:22에선 불신자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살아난다"는 동사는 미래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를 자꾸 입으면 은혜가 점점 커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

과 신앙의 확신이 점점 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인간은 예수를 떠나면 별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 때라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삼은 사람에게 생명을 먼저 주시고 그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경험에 풍성해져서 믿음이 점점 커지니깐 생명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친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말은 자기의 기쁨이나 감정으로 자기에게 유익하면 믿는 자 처럼 보이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돌아서는 가냘픈 믿음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쁘나 슬프나 어떤 형편이나 무슨 지경을 당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본문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예수님 자신의 칭호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에만 있는 말입니다.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유대나라 사회에선 감히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 11장 4절, 19장 7절에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으며 26절엔 "생명을 주었다"는 동사는 단순 과거로써 과거에 단 한번만 발생되는 반복되지 않는 사건을 말합니다.

영원한 시간 전에 아들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시간적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입니다. 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역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소유한 자가 생명을 소유한 자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뜻하는 호칭 중에서 심판을 말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경우에, 고난을 당하는 메시야 직분을 가리킬 때에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인자 같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인자가 지금 본문에 나타나 있는 '심판주'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나오는 인자도 지금 인자로 오셔서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되신 것입니다.

셋째는, 그 생명이 우리가 부활할 때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28, 29절을 보면 또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중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영생으로 통하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소유한 생명이 하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벰후 1:4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죽었다가 육체적 부활이 될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엔 거짓말하는 사람은 모조리 불못에 들어간다고 하였으니 과연 이 세상에서 그 불못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계시록에 나타난 '거짓말'이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도 죄를 지을 경우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 지었다고 낙담하고 자기는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소중히 알고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보아도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자세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내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특별활동시간 이용 「교회사랑」 체험

여름 계절학교, 소년부, 사랑부, 에바다부, 중등부 끝내

지난 주간에도 여름계절학교가 진행되었

다. 무더운 복중이었지만 말씀을 배우려는 천국일꾼들의 진지한 모습은 흘러내리는

지난주간 진행된 각부서별 계절학교는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 그 안에서 자라거라”라는 주제로 6백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새벽기도회, 오전 주제강의, 저녁 부흥회 등으로 진행된 동 수양회의 주강사는 김성운 목사이다.

심방용 새차 3대 구입

교회는 교역자 심방용 차량 3대를 지난

주간 구입했다.

기존 차량의 노후로 인해 일부차량이 교체되는데, 새로 구입된 차종은 제3세대 승용차인 액셀 지엘이다.

시승예배는 7월24일 오전10시 윤용규목사 기도로 갖고, 이세열목사, 김영구목사, 김성운목사에게 각각 인계했다.

세례부 7월 수료식 개최 6개월 교육 끝낸 27명 수료증 받아



▲ 세례부 수료자 일동

교회학교 세례부(부장/이창호장로)는 89

년도 7월 수료식을 7월30일 12시30분 소석관

212호실에서 거행한다. 세례부는 새신자부 교육과정을 이수한

성도 및 학습교인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교회 설립론과 생활론에 대하여 강의를 듣게 되며(강사: 김동열 목사), 교육기간 중에는 매월 두번째 주일엔 찬송가 경연대회, 성경암송대회, 성경 빨리찾기 대회, 성경퀴즈대회, 반별 친교회 등이 있게 된다.

또 매월 셋째 주일엔 6개월 과정을 이수한 교우에게 세례문답을 하고, 수요일에 위임목사에게 세례를 받는다.

이번 수료식에는 2월에 입학한 27명이 수료케 되는데 수료자 명단 및 차기 출석 교회학교는(괄호안) 다음과 같다.

윤옥식(장년1부), 이 근(장년1부), 김수진(장년1부), 장혜숙(장년1부), 김정순(장년3부), 이영임(장년2부), 이상옥(장년2부), 조휘행(장년2부), 장성희(전년부), 조복자(장년1부), 권숙자(장년2부), 조은비(고등1부), 안춘영(청년1부), 이현숙(장년1부), 마경자(장년2부), 김현정(장년1부), 박창숙(장년2부), 오정림(장년1부), 최은영(장년1부), 박수홍(장년2부), 서윤숙(장년2부), 김석영(장년1부), 조숙기(장년1부), 심 철(장년2부), 이경남(장년2부), 배미영(장년2부), 박우엽(장년1부)

위임목사 동정

▲ 7월 29 일(금)~8월 2 일(수) 세계복음서학회 (아일랜드, 더블린)

▲ 8월 11 일(금)~8월 13 일 (주일) 위싱턴복음화대회 (미국 워싱턴)

소년부

소년부(부장/노문환장로)는 제36회 여름성경학교를 7월24~26일까지 충천기도원에서 개최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학생 440명, 교사 50여명 등 490명이 참석한 동 여름성경학교는 김주아전도사가 주강사를 맡았다.

이번 여름학교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자」, 「거듭났어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자」란 성경공부와 찬양·율동, 세족식, 캠프파이어, 장기자랑, 체육대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사랑부

사랑부(부장/이종석장로)는 제1회 여름어린이성경학교를 7월24~25일 교회당 사랑부실에서 개최했다.

「말씀으로 살아가요」란 주제로 학생 45명, 교사 50명이 참석했다.

첫날 예배는 이종석부장 장로 사회로 진행, 담후 3장 16-17절 봉독후 “제일 좋은 책”이란 제목으로 김정자전도사가 설교했다.

예배 이후 찬송과 율동, 분반성경공부, 관들기 특활, 인형극 등으로 진행했으며, 둘째날에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편지쓰기와 그림그리기, V.T.R 시청 등으로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다.

에바다부

에바다부(부장/박인세장로)는 제1회 여름성경학교를 7월24~25일 베다니홀에서 가졌다.

「말씀을 힘써 배우는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로 학생 22명, 교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첫날 1부예배는 박인세장로 사회로 진행, 담후 3장 14-17절 봉독후 “성경을 사랑한 디모데”란 제목으로 임태주전도사가 설교했다.

계속해서 특별활동 시간으로 소년반은 그림그리기, 중등반은 성경이야기(다윗과 골리앗) 시간을 가졌으며, 25일엔 체육대회(피구, 축구, 반별 풍선터트리기, 줄다리기) 시간도 가졌다.

중등부

중등부(부장/임필성장로)는 제27회 여름수양회를 7월26~29일까지 충천기도원에서 개최했다.

교구분할 조정 확정

1990년 1월1일부터 시행

교구위원회는 교구분할 조정안을 지난 7월20일 오후7시 7월 정기당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시행은 오는 1990년 1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구분할(14교구)이 교인 세대수의 고른 분포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할뿐

아니라 행정단위(서울특별시 조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한 불편, 불합리한 점이 많아 이를 보완하게 된 것이다.

변경된 교구는 2교구를 비롯하여 3, 4, 5, 6, 7, 12교구이며 세분화된 변경내용은 별표와 같다.

변 경 전		조 정 후		조 정 내 용	
교구 (세대수)	행정구역	교구 (세대수)	행정구역	전 입	전 출
1 (619)	강남구(역삼동)	1 (619)	강남구(역삼동)	없음	없음
2 (518)	서초구(서초, 양재, 우면, 염곡, 내곡, 신원, 원지, 반포1, 반포삼호가든 ④, 반포한보, 미도④) 강남구(도곡, 세곡, 율현, 자곡) 경기도(성남, 용인, 판교)	2 (538)	서초구	서초구 (반포, 잠원, 방배)	강남구 일부 경기도 일부
3 (417)	강남구(대치, 개포, 일원, 포이)	3 (561)	강남구(대치, 도곡, 개포, 일원, 포이, 세곡, 자곡, 율현) 경기도(성남시)	강남(도곡, 세곡, 자곡, 율현) 경기(성남시)	없음
4 (375)	강남구(압구정, 신사, 학동, 논현)	4 (498)	강남구(압구정, 신사, 학동, 논현, 청담, 삼정)	강남(청담, 삼성)	없음
5 (369)	서초구(반포, 잠원, 방배) 경기도(과천, 안양, 수원, 안산)	5 (388)	영등포구, 구로구 경기도(광명, 안양, 수원, 시흥, 안산)	영등포구, 구로구 경기(광명, 시흥)	서초구 일부 경기(과천)
6 (371)	동작구, 관악구	6 (420)	동작구, 관악구, 과천시	과천시	없음
7 (652)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경기도(부천, 인천, 광명, 김포)	7 (427)	강서구, 양천구 경기(김포, 부천, 인천)	없음	영등포구, 구로구 경기(광명)
8 (495)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경기도(문산, 고양군)	8 (495)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경기도(문산, 고양군)	없음	없음
9 (542)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경기도(의정부, 남양주)	9 (542)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경기도(의정부, 남양주)	없음	없음
10 (457)	동대문구, 중랑구, 중구(신당동) 경기도(구리시)	10 (457)	동대문구, 중랑구, 중구(신당동) 경기도(구리시)	없음	없음
11 (448)	송파구(잠실5, 잠미, 진주, 미성, 시영, 신천동, 풍납동) 강동구, 경기도(광주)	11 (448)	송파구(잠실5, 잠미, 진주, 미성, 시영, ④, 신천동, 풍납동) 강동구, 경기도(하남시, 광주)	없음	없음
12 (538)	송파구(일부 지역은 II교구) (잠실본동, 1, 2, 3, 4동) 강남구(삼성, 청담)	12 (408)	송파구(잠실본동, 1, 2, 3, 4동) (일부는 II교구)	없음	강남 (삼성, 청담)
13 (620)	성동구	13 (620)	성동구	없음	없음
14 (464)	중구(신당동 제외) 용산구	14 (464)	중구(신당동 제외) 용산구	없음	없음

●...조정 교구

1989년 6월 24일 현재

협력구역 현장 밀착취재

초복이 지난 7월21일 오후7시30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홍유순권사(박원규집사) 덕 20여 명의 거실엔 40여 명의 구역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의 구역예배는 명칭을 "충현교회 제11교구 시영, 진주협력구역 하기수련 예배"로 정하고 약간의 긴장감마저 감도는 경건된 분위기 속에서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이 지역의 협력구역장인 안성영집사가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를 섞어가며 예배사회를 진행했다.

1부 순서는 찬송가 168장(하나님의 나팔소리)을 다같이 부른뒤 미래세계의 지도자인 김현묵군이 구역수칙(①서로 사랑을 나누자, ②서로 위하여 기도하자, ③서로 교제를 나누자)을 제창하고, 5지역장인 노문환장로가 기도했다.

사회자가 베드로전서 4장7-11절을 봉독한 후 8명의 남성찬양대(?)가 "주여 이 죄인이"란 제목의 찬양이 있었다.

옥중에서 작사, 작곡되었다는 동 복음송의 1절 가사를 보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가정들에 대한 환영회와 이들에게 충현열쇠 고리를 기념품으로 선물하는 순서도 가졌다.

음식을 서로 권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사랑의 식단과 비슷했다.

먹고 마시며 풍족하게 남은 호뜻한 시간이었다.

제3부 순서는 특강시간을 가졌다.

손경수장로(주간충현 편집국장)의 기도가 있는 후 12교구에 속한 이영열집사(태양금속 무역부 상무)의 "오늘의 우리경제를 진단한다"는 특강이 있었다.

강의자의 신앙간증이 결집된 특강은 듣는 이의 가슴을 감동 감화시키기에 충분했다.

약 3시간에 걸친 이날 구역 수련예배는 대가족 분위기에 먹을 때며 성도의 교제를 갖는, 선택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기에 무척 좋았다.

어찌보면 축소판 충현교회의 은혜충만, 말씀충만, 믿음충만의 협력구역 교회였다.

11교구 시영 · 진주 협력구역

주를 위해 바칩니다"

교구 지도교역자인 김익경목사가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익경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계속해서 2부 순서인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11교구 산하 제5지역 / 시영 · 진주 협력구역 하기수련예배 광경

"정신차리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 것이며, 서로 사랑하므로 허다한 죄를 덮는 긍휼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데 앞장 설 것"을 강조했다.

여성합창단(사실은 구역의 모든 여성들)의 특송이 있은 후 새로 구역으로 이사온

이사 온 새가정 환영회 갖고 각자 준비해온 음식으로 성도의 교제도

구역에 속한 각 가정에서 정성들여 해온 음식을 한자리에 모으니 훌륭한 부페식 식단이 되었다.

그렇게 덥던 무더위가 어느새 자취를 감춘 은혜의 시간, 기억에서 사라질까 걱정(?)이 된다.

구역예배를 위한

충현다락방

1989년 8월 4일(금)

교구위원회 제공

제31과 올바른 권징

성경: 마태복음 18:15-22

요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번뿐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할지니라(마 18:22)

찬송: 337, 338, 339장

1. 권징의 의의

참된 교회가 지녀야 할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전하고도 힘있게 전하는 일과 성례를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과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는 것이다.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여 세우신 법을 시행하는 것인데 교회의 교인과 직원과 각 치리회를 치리하여 권고하는 사건이 일체 포함된다. 이에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권징을 정당하게 시행해야 될 것을 강조하였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라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고전 5:12-13)

이같이 교회의 권징은 지체의 상한 부분을 치료하고 수술하여 건강을 유지함과 같은 것이다.

2. 권징의 목적

권징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존영을 견고케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불의한 자들의 악행과 그릇된 교리를 인하여 해방받지 않기 위하여 범죄자들과 이단에 속한 자들을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선량한 성도가 악한 자들과 교제로 인하여 타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다. 또한 권징의 중요한 목적은 범죄한 자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징의 목적은 범죄자를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잡기 위함이고, 멸망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교인 중 하나가 범죄하면 여러모로

권고하여 회개케하고 만일 듣지 않거든 교회에 보고하고 교회의 말도 무시하고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였다. 이 말씀의 본뜻은 그런 사람은 더이상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권징의 최상의 목적은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런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5:27)

3. 권징의 방도

교회의 치리 즉 권징시행은 매우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지 않도록 심사숙고하면서 조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권징을 시행하는 자세는 하나님 앞의 겸비한 자세로 행해져야 한다. 교인들은 '나는 너보다 의롭다'는 식의 태도를 지니서는 안되고 오히려 자기들도 범죄한 자보다 호리라도 나을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기들도 범죄자가 되었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교회의 권징의 방도는 세상방법과 다르다. 범죄자를 무력으로 치리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방도를 취한다. 벌금을 부과하거나 투옥하던 중세교회의 권징은 성경적인 방도가 아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 그 죄인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사랑의 징계를 하는 것이므로 교회가 교인을 징계할 때에는 가벼운 것으로 시작하여 권고하거나 직분을 잠시 쉬게 하거나 그만두게 하는 방도가 있으며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권리를 박탈하는 수찬정지가 있고 가장 심한 권징으로 제명 출교하여 교인 자격을 박탈하고 이방인 불신자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책벌 아래 있는 교인을 멸시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만일 그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교회는 그를 기쁨과 사랑으로 영접해야 한다. 교회의 치리는 근본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정신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함께 생각합시다.

1.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생각하여야 하는가?(잠 3:11, 12)
2. 권징을 하는 목적은 어디 있는가?
3. 권징은 어떤 방도로 시행되어야 하는가?

공동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교회가 이 세대의 이단과 부도덕 악행의 풍랑에 휩쓸리지 않도록 올바른 권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생경적 권징으로 악행이 제거되고 교회는 정결케 되고 범죄한 자는 회개하고 진리는 빛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존영은 더욱 견고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